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 論文集
第8卷 第1號 1999年 9月 1日

七情과 癌의 相關性에 對한 東西醫學的 考察

朴炳俊 · 金學勳*

Ⅰ. 緖 論

腫瘍細胞의 基本的인 生物學的 特性은 細胞의 增殖과 分化機能의 統制失調라고 할 수 있다[1]. 1858年 獨逸의 病理學者 Virchow는 『細胞病理學』에서 '癌이란 細胞의 疾病'이라 하였으니, 즉 正常細胞가 各種 發癌因子의 作用으로 遺傳物質의 變化가 오고 그 後 其他 各種 因子의 作用을 거쳐 細胞의 變成이 招來되어 結局에는 腫瘍으로 發展한다고 보았다[1-3].

腫瘍의 發生原因은 外部에서 加해지는 環境要因과, 生體 또는 細胞 自身에게 內在해 있는 遺傳的 要因(內因)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2-3], 具體的인 發癌因子로는 飮食物要因, 吸煙, 感染症, 過渡한 性生活, 職業的 危險, 飮酒, 스트레스, 地球 物理的 要因, 公害, 藥品과 醫療節次 등을 들 수 있다[2,4].

韓醫學에서는 疾病의 發生原因을 크게 內因, 外因, 不內外因으로 나누는데, 腫瘍은 外邪, 七情, 飮食失節, 臟腑機能失調 등의 各種 病因이 綜合的으로 作用한 結果로 認識되어 지고 있다[5-7].

이 중 七情은 人間의 情志變化로, ≪素問 · 玉機眞臟論≫[8]에서는 "憂, 恐, 悲, 喜, 怒, 令不得以其次, 故令人有大病矣"라 하여 人體의 生理에 變化를 주어 疾病을 發生하게 하는 바, 腫瘍의 發生 및 進行에 있어서도 重要한 要所로 여겨지고 있다[5]. ≪素問 · 通評虛實論≫[8]에서는 食道癌인 噎膈을 "暴憂之病"으로 認識하고 있으며, 朱[22]는 "憂怒鬱悶, 晰夕積累, 脾氣消阻, 肝氣橫逆"이라 하여 七情을 乳硬, 즉 乳房癌의 主要 發癌因子로 보았다.

최근 七情에 關한 硏究로 李[11]와 柳[12] 는 七情이 五臟機能에 미치는 影響 등에 對해 報告하였고, 西洋醫學的으로는 七情에 該當하는 스트레스가 神經系統, 免疫系統, 內分泌系統 등에 미치는 影響과 腫瘍과의 相關性에 關한 硏究가 活發히 進行되고 있으며[7,9-10], 治療領域에 있어서도 스트레스에 對한 專門治療導入이 要求되는 實情이다[4,9,13-15].

이에 本人은 七情과 癌의 相關關係에 對하여 文獻을 中心으로 考察하여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Ⅱ. 本 論

1. 七情의 槪念 및 內臟氣血과의 關係

(1) 七情의 槪念

東洋醫學은 氣를 調節하는 醫學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醫學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東洋醫學을 理解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의 움직임에 對하여 有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음의 움직임은 感情으로 나타나며 東洋醫學에서는 感情을 일곱 가지 즉, 喜 · 怒 · 憂 · 思 · 悲 · 恐 · 驚으로 나누어 七情이라 하고 이 七情이 各其 身體的인 變化를 일으킨다고 하였다[9].

≪內經≫의 七情病機學說은 七情을 五臟機能活動의 하나로 보고 七情의 太過는 五臟의 機能을 損傷시킬 수 있다고 認識하고 있는 바 五臟의 病變에 依한 七情異常에 關하여 첫째로, 七情不和로 일어날 수 있는 癲, 癎, 狂 등의 病症을 言及하였고, 둘째로, 以情勝情의 五志相勝治法을 述하였으며, 셋째로, 豫防醫學的 側面에서 '恬淡虛無'함으로 七情情神의 生理活動이 維持될 수 있음을 記하였다[16-17].

七情의 變化는 精神活動의 具體的인 表現이고 相異한 事物이나 相異한 環境의 影響에 依하여 사람의 情志를 時時刻刻 活動變化시키는 것이다. 正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敎室

常的인 狀況下에서는 그 變化에 節度가 있기 때문에 健康에는 無害하지만 만약 喜怒憂思가 지나치면 精神上 過度의 刺戟을 받아 그것이 正常의 生理變化에 影響을 주어 疾病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므로 情志가 갑자기 過度하게 되거나 精神的인 刺戟이 오랫동안 持續되었을 때 正常的인 精神活動을 잃게 되어 人體의 氣機는 紊亂해지고 臟腑陰陽氣血이 失調되어 疾病이 發生하며, 甚할 경우 臟腑의 器質性 病變을 일으키게 된다. 이 때 七情은 疾病을 發生시키는 重要한 原因이 되는 故로 ≪素問≫<玉機眞臟論>에서는 "憂, 恐, 悲, 喜, 怒, 令不得以其次, 故令人有大病矣"라고 하였다[16,17].

最近까지 心理學者들이 스트레스에 對하여 내린 가장 普遍的인 定義는 스트레스를 하나의 刺戟으로 보는 入場이다[18]. 여기에는 外的인 環境的 條件으로부터 內的인 生理的 現狀까지 多樣한 刺戟들이 包含된다. 스트레스는 肉體的인 要因과 精神的인 要因으로 나눌 수 있다. 肉體的인 스트레스는 外的이나 自然的인 힘이 身體에 作用할 때 생기는 것인데 過勞, 損傷, 營養不足, 吸煙, 藥物이나 毒性物質에 露出될 때이다. 感情的인 스트레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공포, 미움, 사랑, 분노, 긴장, 슬픔, 불안, 기쁨 등이다. 肉體的인 것과 感情的인 스트레스가 함께 생길 수 있는데, 例를 들면 姙娠, 思春期, 나이를 먹는 것 등이다. 過渡한 스트레스는 단백질, 칼륨, 인 등의 排泄이 增加하고 칼슘 貯藏이 줄어든다. 비타민 C는 스트레스 狀態에서 副腎에서 消耗되어 비타민 C가 不足하게 된다. 스트레스로 因한 內分泌系統의 호르몬 分泌, 過渡한 자유유리기(free radical)의 分泌는 細胞나 免疫機能의 異常을 誘發할 可能性이 크다[10].

(2) 七情과 內臟氣血의 關係

七情은 五臟의 精氣를 根本으로 하고 있어 五臟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데 ≪素問≫<陰陽應象大論>[8]에서는 "人有五臟化五氣, 以生喜怒悲憂恐", "心…在志爲喜, 肝…在志爲怒, 脾…在志爲思, 肺…在志爲憂, 腎…在志爲恐"이라고 言及하였다. 또한 七情은 氣血의 機能活動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다. 氣는 人體臟腑組織에 對하여 溫煦, 推動作用이 있고, 血은 人體臟腑組織에 濡養作用이 있으므로 氣血은 人體精神活動의 根本이 되니 氣血의 偏盛偏衰는 精神活動에 影響을 주게 되므로 肝臟氣血을 紊亂시키면 煩躁易怒, 恐懼不安 등이 나타나고, 心臟氣血을 紊亂시키면 哭笑無常이 誘發된다. 그러므로 ≪靈樞≫<本神>[19]에서 "肝氣虛則恐, 實則怒; 心氣虛則悲, 實則笑不休"라 하고,≪素問≫<調經論>[8]에서 "血有餘則怒, 血不足則恐"이라고 言及한 것은 本臟氣血이 有餘偏盛하면 本臟의 情志가 反映되고 本臟의 氣血이 不足하면 母子의 臟 或은 相侮하는 臟의 情志가 發現하게 된다. 즉 "肝氣虛則恐", "血不足則恐"이라 함은 恐은 腎志로서 肝臟氣血이 不足하면 "子盜母氣"하여 母臟의 情志(腎의 恐)가 反映된 것이고, "心氣虛則悲"라 함은 悲는 肺志로 心火가 본래 肺金을 制約하는데 心氣不足하면 肺金이 오히려 心火를 相侮하여 肺의 情志인 悲가 나타나는 것이다.[16,17,20] 以上을 定理하면 다음과 같다.

喜 : 즐거우며 氣의 循行이 和平해지니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피의 循環도 잘되어 身體 內에 鬱滯되는 것이 없어지므로 이런 狀態를 氣가 緩해진 것이라고 하였다. 즉, 모든 마음의 不滿이나 生理機能의 不均衡狀態가 解消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喜樂도 지나치면 神氣가 消耗 分散되어 올바른 神의 機能을 다하지 못하게 되며 五臟 중 神을 간직한 心의 機能마저 傷하게 한다.

怒 : 盛을 내면 氣가 모두 위로 오른다고 하였다. 즉, 盛을 낸다는 것은 血氣가 모두 逆上하는 現狀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甚하면 피를 吐하든가 氣絶을 하기도 한다. 盛을 자주 내던가 甚한 感情의 興奮은 五臟 中 피를 貯藏하고 있는 肝을 傷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肝이나 膽의 機能이 異常興奮되면 行動이 動的이며 勇敢해지고, 感情的으로는 盛을 잘 내고 興奮되기 쉬우며 肝膽이 弱해지면 怯이 많아져서 不安해하고 決斷力이 없어 優柔不斷해진다.

憂 :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氣의 循行이 막혀 閉塞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氣가 閉塞되면 五臟 中 肺와 脾를 傷한다고 하였으니 근심, 걱정 등의 感情的 갈등은 呼吸機能과 消化機能을 해친다는 뜻이다.

思 : 한가지 일을 골똘히 생각하게 되면 氣가 循行하지 못하고 한 곳에 맺힌다고 하였다. 그리고 五臟 中 消化機能을 主管하는 脾臟을 傷한다.

悲 : 슬픈 感情이 있으면 氣가 가슴 속에 막혀 흩어지지 못하므로 熱氣로 變하여 消失되면서 肺와 心의 두 臟器를 모두 傷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 呼吸器나 循環器系의 病이 생기면 感情도 感傷的이 되는 傾向이 있다.

恐 :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氣가 아래로 처져 갇히게 되고 위로 오르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 두려운 感情은 五臟 中 生殖器와 內分泌機能을 主管하는 腎을 傷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려운 感情은 精力을 弱하게 하며 또 血이 不足해도 두려움이 그치지 않는다.

驚 : 크게 놀라면 氣는 흩어져서 循行의 秩序가 무너지며 心도 의지할 바를 잃고 散亂해져 올바른 판단이나 생각을 못하게 되므로 온 몸의 힘이 쑥 빠지며 心身이 모두 昏亂해 지는 것이다. 驚의 感情은 五臟 中 腎이 主管하므로 過度하게 놀라거나 하면 역시 腎臟에 病變을 招來할 수 있는 것이다.

七情은 모두 五臟을 損傷시키나 特히 心, 肝과 氣機鬱滯에 主로 影響을 미치니 心은 神明을 主함으로 心神이 損傷을 받으면 神志不和하고 神明逆亂하여 臟腑氣血陰陽의 不和로 百病이 生하며, 肝은 能히 疎泄作用을 하지 못하여 위로 心神을 犯하고 脾胃를 克하며 肺金을 侮하게 된다. 또한 이로 因한 氣機鬱滯는 血行瘀滯와 氣血不和를 일으키고 火로 變하여 燔灼五臟, 消耗氣血시켜 停濕生痰 등의 여러 病症을 惹起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疏肝解鬱과 通暢氣機가 治療의 主眼點이 된다[9,16,20].

以上과 같이 七情은 五臟의 機能을 左右하며 五臟은 또한 七情을 우러나게 하고 있으니 그 相互關係는 緊密하여 마음과 몸은 하나로서 그 境界가 없는 것이 東洋醫學의 思想인 것이다.

2. 七情의 病理

東洋醫學은 精神을 五志로 나누어 人體의 基本臟器인 五臟과 結付시켜 精神은 肉體에 깃들어 있고, 英敏한 神의 作用도 五臟의 圓滑한 活動과 相互協助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精神作用의 具體的인 表現으로서의 感情의 偏傾이나 過極은 五臟의 機能에도 影響을 주어 圓滿한 生理機能을 損傷시킨다고 하여 心身一如의 生命現狀을 說明하고 있다. 이와 같이 精神的인 過勞, 즉 七情傷은 身體에 五臟의 虛實, 血虛, 氣虛, 精損, 氣의 循環障碍, 痰의 造成 등 病的인 要因을 만들어준다. 또한 肉體的인 過勞나 飮食不節, 過飮, 過色 등도 이러한 病的要因을 이루며 精神作用에까지 그 影響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9].

(1) 臟腑의 病證

喜는 心臟精氣活動의 反應으로 生理的인 狀態에서 喜는 氣를 緩케 하니, ≪靈樞≫<本神>[19]에서는 "喜則氣和志達, 營衛通利, 故氣緩矣"라 言及하였으며, 만약 喜의 情志가 過度하였을 때는 心을 傷하니 ≪靈樞≫<本神>[19]에서는 "喜樂者, 神憺惮而不藏"이라고 述하고 있다. 臨床上 喜가 心을 傷해 病이 된 것은 情蕩而不收, 喜笑無度, 注意力不集中, 乏力懈怠하고, 心悸失神이 나타나는데, 甚하면 狂亂失常 등의 病症이 나타난다[16,17,19,20].

怒는 肝臟情志活動의 反應으로 過度한 怒는 肝의 疏泄作用을 失調시켜 氣를 上逆하게 하고 血도 따라서 逆하게 되어 蒙蔽淸竅, 昏厥發作을 일으키므로 ≪素問≫<擧痛論>[8]에서는 "怒則氣逆, 甚則嘔吐"라 하고, ≪素問≫<生氣通天論>[8]에서는 "大怒則, 形氣絶而血菀于上, 使人薄厥"이라 述하였다. 또한 怒로 肝을 傷하면 肝陽이 上亢하거나 或은 氣가 鬱滯하여 火로 變해 肝火上炎하는데 이런 氣血運行의 阻害는 一身의 氣를 主하는 肺의 宣發肅降의 機能에도 影響을 주며 ≪素問≫<至眞要大論>[8]에 "諸氣憤鬱, 皆屬于肺"라 하여 怒로 因한 病理變化가 肝, 肺에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따라서 怒의 情志病症은 肝氣가 亢逆하여 위로 頭目에 이르면 眩暈, 頭痛, 易怒가 나타나고, 肝氣鬱結로 肝氣가 不暢하면 胸悶脇痛, 面色靑白, 抑鬱不樂, 喜嘆息 등이 나타나며, 氣가 鬱하여 火로 變해 肝火上炎하였을 때는 面紅目赤, 口苦咽乾이 나타나며, 血隨氣逆하여 上으로 走하면 蒙蔽淸竅, 突然昏厥發作하는 症狀으로 要約할 수 있다[8,16,17,20].

憂는 精神沈鬱의 狀態로 ≪靈樞≫<本神>[19]에

"愁憂者,氣閉塞而不行"이라 하였고 ≪素問≫<陰陽應象大論>[8]에서는 "憂傷肺"라고 言及하였으니 이는 憂가 氣를 主하는 肺臟과 密接한 關聯이 있으므로 憂의 太過는 肺를 損傷시켜서 胸悶, 喜太息의 症狀을 나타낸다. 또한 ≪靈樞≫<本神>[19]에서는 "脾愁憂而不解則傷意"라 하였으니 이는 憂가 脾와도 關聯을 맺고 있어 憂로 因해 脾氣가 鬱結되면 運化機能이 失調하여 食納不香, 納果不欲飮食, 脘腹滿悶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즉 憂가 脾를 傷하게 하는 原因은 憂는 肺의 志에 基因하지만 母子의 臟腑인 脾에 影響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8,16,17,19,20].

思란 精神集中, 問題考慮의 表現으로 脾臟精氣의 反映이다. 이른 바 "思則氣結"이라 함은 思慮過多로 人體臟腑氣機의 鬱結阻滯不暢을 일으켜 脾胃의 機能을 阻害하여 飮食水穀의 受納, 腐熟, 運化障碍를 惹起한다. 또한 思는 ≪素問≫<擧痛論>[8]에 "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氣留而不行, 故氣結矣"라 한 것과 같이 神明之心에서 出하며 思의 太過로 氣機가 鬱結되면 心, 脾의 氣가 不暢하게 된다. 따라서 心氣가 鬱結하여 心神이 失常되면 心胸苦悶煩亂, 怔忡, 健忘, 抑鬱寡歡 或 精神失常 등의 病症이 나타나고 오래되어 化熱하면 心脾鬱熱하여 心煩不眠, 心悸易驚, 口脣乾燥, 納果便結, 口舌糜爛生瘡, 舌尖紅赤, 苔黃燥, 脈細數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8,16,17,20].

悲는 肺의 情志反應으로 "悲則氣消"라 함은 悲의 過度로 일어나는 人體臟腑機能活動의 減退와 肺氣의 消散不足을 說明한 것이다. ≪素問≫<擧痛論>[8]에 "悲則心系急, 肺布葉擧, 而上焦不通, 營衛不散, 熱氣在中, 故氣消矣"라고 한 것은 氣의 消散이 氣機(肺氣)의 鬱結로 말미암아 生熱하고 耗氣하여 氣虛를 일으켜 臟腑機能을 衰退시키는 機轉을 述한 것으로 面色慘淡, 神色不足, 氣短無力, 喜嘆息, 精神不振, 頹喪懊憹, 食納不香 或 二便不利 등의 病症을 일으킨다[8,16,17,20].

恐은 사람의 本身에서 나타나는 一種의 畏怯情緖로 外部事物의 刺戟에 依하여 精神이 極度로 緊張한 狀態에서 일어난다. ≪靈樞≫<經脈>[19]에서 "腎足少陰之脈… 氣不足則善恐"이라 하였는 데 이는 恐이 腎臟精氣의 反映임을 나타낸 것이고, ≪靈樞≫<本神>[19]에서 "恐懼而不解則傷精, 精傷則骨酸痿軟, 精時自下", ≪素問≫<擧痛論>[8]에서 "恐則精却, 却則上焦閉, 閉則氣還, 還則下焦脹, 故氣下行矣"라 한 것은 腎氣虛陷하여 封藏不固하므로 腰酸腿軟, 遺精, 尿失禁, 腹泄, 月經紊亂 或 淋瀝不斷 등의 症狀을 惹起한다[8,16,17,19,20].

驚은 갑자기 外部 事物의 刺戟을 받아 發生하는 情志로 危險에 부딪히고 異物을 目擊하거나 큰 소리를 들었을 때 主로 일어나며 恐은 스스로 自覺할 수 있지만 驚은 스스로 自覺할 수 없다. ≪素問≫<擧痛論>[8]에 "驚則心無所依, 神無所歸, 慮無所定, 故氣亂矣"라고 한 것은 大驚하면 心腎을 損傷시켜 氣機가 紊亂하게 되므로 心氣渙散, 神無所附하여 易驚而神怯, 心悸怔忡, 憂傷不寧, 精神萎靡, 或精神錯亂, 譫語, 擧止失常 등의 症狀을 惹起한다[8,16,17,20].

(2) 氣의 病證

感情의 變化나 寒熱의 差異 等이 一種의 스트레스 因子로 作用하는 데 對한 生體의 反應, 特히 自律神經系의 緊張과 弛緩에서 오는 여러 症候 및 呼吸作用과 穀氣로부터 얻는 人體 生命活動의 推進力으로서 氣運의 變動에서 오는 여러 症候를 모두 氣의 病證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分類해보면 精神的 또는 寒熱 등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依한 症候를 七氣, 九氣, 氣鬱, 中氣, 氣痛, 氣逆 등으로 나누며, 人體의 氣의 源泉이 될 수 있는 大氣를 呼吸하는 狀態에 따라 少氣, 短氣로 나누고, 生命力의 推動作用을 하는 에너지로서의 氣의 升降狀態에 따라 이를 또 上氣, 下氣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七氣, 九氣, 氣鬱, 中氣, 氣痛, 氣逆 등의 症候는 하나의 스트레스 現狀이라 할 수 있으며 少氣, 短氣, 上氣, 下氣 등은 主로 體力의 虛實과 關係된다[9,20-21].

七氣證은 主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原因이 되어 오는 症候로서 感情의 表現인 七情이 지나쳐 病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症勢로는 痰이 凝結하여 솜 같기도 하고 皮下의 膜과 같기도 하며 甚하면 살구씨 만한 것이 咽喉 속에 붙어 있는 것 같은 自覺症을 느끼며 이를 삼키려 해도 넘어가지

않고 뱉으려 해도 뱉어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을 梅核氣라 한다. 또 腹部가 脹滿하며 飮食을 먹지 못하고 上氣가 되므로 喘急을 하게 된다. 甚하면 積聚와 같은 덩어리가 心腹에 생겨 痛症이 일어난다[8,9,20-21].

九氣證에서 九氣란 喜·怒·悲·恐·驚·思·寒·熱·勞를 말한다. 이러한 九氣에 傷해서 心腹에 痛症이 甚하게 오는 症候를 九氣證이라고 한다. 주로 精神的인 要因에서 오며 外氣의 變化 및 肉體的인 過勞로 因해서도 온다. 積聚가 心下部에 특히 몰려 있으며 心腹에 甚한 痛症이 일어나게 되면 죽고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다. 飮食맛이 없으며 때로는 배고파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고 먹지도 않았는데 배고프지가 않다. 또 情緖가 不安定하여 항상 가슴이 답답한 症狀들이 隨伴된다[8,9,20-21].

氣痛證에서 氣痛이란 정신적인 쇼크나 스트레스가 原因이 되어 일어나는 모든 痛症을 말한다. 忿怒, 感情의 抑鬱, 欲求不滿, 不安, 恐怖 등의 精神的인 스트레스가 作用하면 自律神經系를 緊張시키므로 痛證을 誘發시킨다. 例를 든다면 心因性으로 오는 胃痙攣이나 潰瘍痛 같은 것이 代表的인 症候이다. 이와 같은 精神的인 스트레스는 단순히 內臟器의 機能的인 變化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器質的인 病變까지도 가져오게 된다. 즉, 消化性潰瘍, 慢性胃炎, 潰瘍性大腸炎, 膽石痛, 膽囊炎 등에 甚한 痛症을 隨伴하는 器質的인 病의 原因이 된다. 最近에 와서는 各種 癌도 精神的인 스트레스가 發病 및 進展에 크게 關與하고 있으리라는 推定도 상당히 有力한 論證으로 認定되고 있다. 症狀的으로는 精神的인 충격이나 갈등이 있을 때 급작스럽게 甚한 痛症이 일어난다. 痛症이 일어나는 부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頭痛, 胸痛, 下腹痛, 背痛, 腰痛 등이 일어난다[8,9,20-21].

氣逆證이란 精神的인 衝擊이나 氣溫의 變化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또는 體質에 안 맞는 飮食에 依한 食毒, 濕熱의 蓄積 등이 原因이 되어 氣의 循行에 異變을 招來해서 오는 症候를 말한다. 氣가 거슬러 올라가 서로 衝突하여 생기는 症狀은 모두 火에 속하는데 '諸逆沖上, 皆屬於火'라 하여 모두 內熱이 原因이라고 하였다. 이는 精神的인 衝擊이나 갈등, 또는 氣溫의 變化나 濕熱의 蓄積 등이 하나의 스트레스로 作用함으로써 이에 對應하는 生體의 機能이 異常亢進되는 데서 오는 內熱을 말하는 것이다. 症狀은 煩熱이 있어서 上氣되고 머리가 무거우며 어지럽다. 한편 손발이 차고 霍亂도 隨伴된다. 먼저 氣를 破壞시켜야 하는데 氣를 내리게 되면 火 역시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8,9,20-21].

少氣證에서 少氣는 呼吸이 微弱한 狀態를 말하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體力이 虛弱한 사람에게 많이 온다. 肺氣가 不足하거나 腎臟이 虛하면 氣가 적어서 말을 할 때도 힘차게 못하고 眞氣가 虛하여 脈이 弱하며 숨차게 되는 症狀을 나타낸다[8,9,20-21].

短氣證에서 短氣란 呼吸이 짧고 빠른 狀態를 말하는 것으로 배가 더부룩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呼吸狀態이다. 呼吸은 빠르면서도 서로 接續되지 못하므로 喘息과 類似하나, 어깨를 들먹거리지 않으며, 呻吟하는 것 같으나 痛症은 없다. 대개 痰飮이 心下에 停滯하여 症狀이 나타나기도 한다[8,9,20-21].

上氣證에서 上氣란 呼吸하는 모습이 내쉬는 氣가 많아지고 들이마시는 氣는 적은 상태를 뜻한다. 呼吸機能面으로는 正常人에게서도, 氣質한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으나 病的인 경우는 呼吸器나 心臟의 疾患이 原因이 되는 일이 많다. 이는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 앉아있거나, 或은 남의 앞에 나가거나, 또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했을 때 느끼는 症狀인데 뚜렷한 原因도 없이 上氣하는 수도 있다. 이것은 自律神經의 失調로 일어나는 것으로 女性에게 많은데 冷症과는 正反對의 關係에 있으며 一種의 血管運動神經症에 該當된다[8,9,20-21].

下氣證은 內臟下垂 등 無力體質에 흔히 있는 症候로서 甚하면 虛脫狀態에 이른다. 深한 病疾이나 慢性的인 消耗性 疾患 등으로 元氣가 衰退되었을 때나 또는 肉體的인 過勞, 營養不足, 過飮 등으로 眞氣가 枯渴되었을 때 下氣가 된다. 下氣가 甚하면 脫肛이나 子宮脫出, 또는 大便을 수없이 보게 되기도 한다[8,9,20-21].

3. 腫瘍發生因子로의 七情

韓醫學에서는 '邪氣所湊, 其氣必虛'라 하여 '內虛'가 疾病發生過程에서 根本原因이 된다고 보았다. '內虛'는 先天의 稟賦不足 或은 後天失養 등으로 臟腑가 虛衰해지거나 或은 外感六淫이나 內傷七情 등으로 氣血의 機能이 紊亂해져 臟腑機能이 失調되는 것으로 그 중에 內傷七情은 腫瘍의 發病과 發展에 重要한 要素가 된다. 사람의 情志變化는 人體의 生理에 變化를 주어 疾病을 發生하게 한다. 情志는 七情, 즉 喜·怒·憂·思·悲·恐·驚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이는 人體의 外界에 對한 生理反應이다. 七情太過(興奮)와 不及(抑制)은 體內에 非正常的인 氣血運行과 臟腑機能의 失調를 誘發시켜 疾病이 發生하게 된다. 反對로 臟腑氣血에 病이 있으면 情志方面에 變化를 招來하게 된다. 七情으로 因한 病의 主要 症狀은 '氣機' 方面의 變化가 나타나는데 怒하면 氣上하고, 憂思하면 氣結하고, 悲하면 氣消하고, 恐하면 氣下하고, 驚하면 氣亂하고, 喜하면 氣緩하게 된다. 七情과 五臟의 關係는 暴怒하면 傷肝하고, 過喜하면 傷心하고, 憂思하면 傷脾하고, 過悲하면 傷肺하고, 大恐하면 傷腎하게 된다. 精神的인 過度한 興奮과 抑制는 모두 全身의 氣血, 臟腑의 機能에 影響을 미쳐 神經體液系統의 機能失調를 惹起할 수 있으므로 七情의 變化는 腫瘍의 病因에 있어서 重要한 位置를 점하고 있다. 古代 醫家들은 腫瘍의 發生과 發展이 精神要因인 情志不隨와 關聯이 깊은 것으로 生覺하였는데, 例를 들면 噎膈(食道癌)을 ≪內經≫에서는 "暴憂之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朱丹溪는 乳房癌의 發生原因을 "憂志鬱悶, 晰夕積累, 脾氣消阻, 肝氣橫逆"이라 하여 男便이 없거나 相思病을 앓는 女性 或은 외롭게 사는 女性에게 많다고 하였다. 明代 陳實功은 "乳岩由於憂思鬱結, 所願不遂, 肝脾氣逆, 以致經絡阻塞, 結積成核"이라 하였고, 李梴은 肉瘤를 "鬱結傷脾, 肌肉消薄與外邪相搏, 而成肉瘤"라고 說明하였으며, ≪醫宗金鑑≫에서는 "失榮證"을 "憂思志怒, 氣鬱血逆, 與火凝結而成"한 것으로 말하였다. 이것은 모두 腫瘍의 發病과 精神情緖가 關聯됨을 說明하는 것으로 七情所傷 或은 其他 原因으로 臟腑虧虛, 氣血失調 등의 內虛 狀況이 招來된 狀態에서 發癌因子가 侵襲하면 "內虛"와 더불어 內外의 邪가 合해져 人體의 氣血이 停滯되고 痰凝毒結하게 되어 癌이 發生하게 된다[5,8].

西洋的인 觀點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致癌因子로 作用하는 過程에 對해 아이언 고울러는 " '싸움 아니면 도망'이라는 反應과 聯關된 體內 化學的 性質上의 變化는 短期的으로는 相關이 없다. 그 變化는 短期間의 激烈한 活動을 爲한 適切한 準備가 된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不適合하면 持續하기에 適合하지 않다. 體內化學性質에 對한 그러한 變化가 持續되는 경우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것을 經驗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사람들을 短期間 不安하게 만드는 挑戰이다. 스트레스는 挑戰에 反應해서 適合한 行動을 取해 보지만 그것을 解消할 수 있는 能力이 없을 때 發生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解消되지 않는 挑戰이다. 스트레스는 매우 個人的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實際로 挑戰 그 自體의 特性에 依해서라기보다는 挑戰에 反應하는 方法에 의해서 決定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解消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深刻한 스트레스를 誘發할 수 있다. 이어지는 問題는 繼續되는 스트레스로 因해서 肉體의 免疫體係가 枯渴되면 體內 化學的 性質에 影響을 끼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스스로 維持하고 고칠 수 있는 肉體의 能力을 減少시키며, 特히 호르몬 水準에 變化를 준다. 그래서 잘못된 食餌療法과 같은 要因들과 함께 스트레스는 많은 病들이 浸透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나는 스트레스가 癌을 일으키는 主要한 原因이라는 것을 確信한다. 實際로 내가 만나보았던 모든 癌患者들의 發病要因은 스트레스가 主要要因이었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大部分은 自身들의 生活에 慢性的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重要한 것은 一般的으로 그들은 癌患者들의 共通된 心理的 狀態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質問을 받은 患者 중 95%가 그들의 健康을 急激히 惡化시키는 甚한 스트레스를 經驗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그들이 癌으로 診斷받기 훨씬 전에 일어났으나 그 影響은 계속 이어졌다.… 心理

的 要因이 糾明되어 適切한 治療가 이루어 진다면 癌을 發展시킨 主要 推進力을 즉시 除去할 수 있을 것이다. 大部分의 癌患者들은 이러한 心理的인 側面을 認識하고 있다. 몇몇 患者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正確하게 羅列되는 것을 들으면 놀라워한다. …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몸의 自然的인 機能에 根本的인 障碍를 일으킨다는 學說과 一致하는 것이다. 너무 深刻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癌이라는 自己 破壞的인 疾病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지푸라기, 즉 또 하나의 主要 原因이 明白하게 나타나게 된다. 經驗에 의하면 大部分의 癌患者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大部分은 癌症勢가 처음 나타나기 前 3個月에서 2年 사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劇的인 事件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금까지 내가 相談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共通된 期間은 18個月이었다. 몸이 內面狀態를 外部症勢로 나타내게 되는 데는 오랜 時間이 걸리는 것 같다.… 癌患者들의 問題點은 自身의 삶에 根本的인 變化를 주는 深刻한 挑戰에 부딪혔을 때 對應해 나갈 能力이 없다는 것에 있다. 適切하게 對應하지 못하고 그 狀況으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하는 無能力이 스트레스라는 身體의 化學的 性質에 變化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다시 免疫體係를 低下시키고 癌의 發病에 重要한 原因을 提供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4].

4. 七情의 腫瘍發生病機

(1) 七情과 神經系統과의 關係

人間의 마음과 몸의 中樞가 腦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身體를 腦의 指令으로 調節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은 主로 神經과 호르몬이다. 身體의 機能은 神經系와 內分泌系에 依하여 調節된다. 한편 마음의 作用도 生物學的으로는 生理, 生化學的인 過程임에 틀림없으나 아직 자세히는 밝혀져 있지 않다. 神經系는 그 構造와 機能面으로 보아 中樞神經系와 末梢神經系로 나뉜다. 身體의 活動을 支配하는 末梢神經系는 體性神經系와 自律神經系 등 두 種類가 있다. 여기서 다시 體性神經系는 知覺神經과 運動神經으로, 自律神經系는 交感神經과 副交感神經으로 各各 나누어져 있다. 마음과 몸의 中樞인 腦는 部位에 따라 機能의 役割이 決定되어 있다. 簡單히 그 役割을 說明하면 大腦는 마음의 座이고, 오래된 皮質로 불리는 大腦邊緣係는 主로 本能이나 情動을 管掌하고 있으며, 視床下部는 自律神經과 內分泌係의 中樞로서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役割을 한다. 大腦邊緣係는 心身症의 發現에 특히 關係가 깊고 自律神經系의 中樞인 視床下部를 主體에서 調節하고 있기 때문에 '內臟腦'라고도 부른다. 또 個體를 維持하기 위한 食欲과 種族을 保存하기 위한 性慾의 本能을 調節하고 있다. 이들의 本能的 欲求가 充足되지 못하거나 阻害되면 不快感이나 憤怒 등의 感情이 일어나는데 이런 作用이 있기 때문에 大腦邊緣係를 또한 '情動腦'라고도 부른다. 大腦의 解剖生理 中에 心身症과 관계가 깊고 여기에 소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網樣體復活係이다. 이는 人間의 마음의 機能을 뒷받침하는 意識의 水準을 調節하여 주기 때문에 睡眠과 覺醒, 注意集中, 習慣 등의 生理的 메커니즘을 管掌하고 있는 것이다. 網樣體는 全身의 感覺機에서 보내오는 刺戟에 依해 活動할 수 있는 構造로 되어있다. 따라서 感覺刺戟이 强하면 눈을 뜨게 되고 刺戟이 弱하면 意識의 水準이 내려가 睡眠을 取하게 된다. 自律訓練法이나 冥想, 參禪을 할 때 느끼는 變成意識狀態는 網樣體復活係의 機能에 依한 것이다[5].

이러한 機轉으로 사람들은 各種 社會生活 중 外界의 信號에 따라 相應하는 反應을 하며 이 중에는 大腦의 信號에 對한 反應過程도 있고 同時에 人體의 心理活動過程도 있다. 사람들은 外界의 精神因子, 例를 들어 一時的인 것이라면 情緒狀態는 매우 빠른 時間內에 正常으로 回復되고 이러한 體內의 生理, 生化變化 또한 빨리 復原된다. 가령 心理的 衝擊 및 客觀的인 刺戟이 사람들의 心理에 持續的 影響을 미친다면, 特히 强한 惡性刺戟이라면 必然的으로 사람들 心理上에 不良한 影響을 미치고 進行하여 사람의 生理狀態에도 影響을 미치니 이러한 嚴重한 持續的인 影響은 人體 內의 急激한 失調를 일으켜 發癌因子로 作用하게 된다[7].

(2) 七情과 免疫과의 關係

癌과 精神健康에 對해 硏究하는 사람들의 分析

에 따르면 癌患者들의 性格에 몇 가지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었다고 한다. 感情表現, 특히 '화'를 過渡하게 抑制하는 性格, 갈등을 克服하기 보다 피하는 性格, 그러면서도 過度한 社會的 欲求를 가진 性格, 每事에 積極的이고 攻擊的이보다는 消極的이고 참는 性格으로, 完璧主義者들이 癌에 잘 걸리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이런 性格的 特性을 가진 사람들은 免疫能力에 關係되는 淋巴球細胞와 貪食細胞들의 機能은 떨어지고, 遺傳子의 損傷回復能力은 減少하는 반면 癌細胞分列은 增加한다는 報告가 많다. 乳房癌 患者가 화를 삼키는 정도가 클수록 抗體生産이 적어진다는 報告가 있으며 社會的 欲求가 큰 患者일수록 스트레스에 더욱 예민하다는 報告도 있다[13].

스트레스가 免疫에 影響을 주는 機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신호르몬인 DHEA(Dehydroepiandrosterone)는 組織의 發達과 維持에 直接的으로 關與한다. DHEA는 대개 25세 근방에서 減少하기 始作하여 老人이 되면 매우 낮은 水準에 이르게 된다. 老人에서 DEHA의 減少는 NK세포(Natural killer cell : 자연살해세포)의 活動力이 떨어지게 된다고 生覺된다. NK세포는 癌細胞 등을 찾아내어 攻擊해서 구멍을 내어 죽이는 能力을 갖고 있다. 따라서 老齡에서는 NK세포가 癌細胞를 잘 攻擊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실제 DHEA를 老人에게 投與하면 NK세포가 18-20週 정도에 22-37% 增加를 보이고 細胞毒性(cytotoxicity)은 45% 增加를 나타낸 結果로 보면 DHEA는 老人에서 NK세포 增加를 刺戟한다고 할 수 있다. 쥐실험에서 DHEA는 不安과 絶望에 대한 抑制效果를 나타내었다. 우리의 身體는 敵과 直面했을 때 스트레스 反應은 투쟁이나 도망을 하는데 이중 먼저 DHEA가 투쟁 反應을 始作한다. 그러나 만약 너무나 刺戟이 强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生成되는데 이때 너무 많은 코티솔이 生成되면 敵과 싸우는 것보다는 도망치는 反應이 나온다. 즉, 코티솔은 DHEA와 反對 效果를 나타내는데 에이즈 患者에서는 NK세포의 活動을 意義있게 抑制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DHEA의 減少뿐만 아니라 코티솔의 增加로 NK세포를 減少시키고 CD4 면역세포를 減少시킨다고 한다. 코티솔이 長期間 동안 DHEA에 比해 그 比率이 너무 높으면 組織의 大部分, 特히 腦나 免疫係의 損傷을 입히게 되는 것이다. 많은 硏究에서 스트레스는 免疫을 抑制시킬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짧다고도 한다. Andersen은 스트레스가 癌組織의 發生과 成長에 影響을 미치는 方式으로 免疫의 機能을 變化시킬 수 있다고 假定하였는데 여기에 몇 가지 問題點에 對한 Sheldon Cohen 등의 論点을 紹介한다[10].

① 스트레스가 免疫機能을 바꿀 수 있다.

精神的 스트레스가 免疫機能을 바꿀 수 있다는 많은 機轉의 證據가 있다.

- 中樞神經에 依해 直接的인 淋巴組織의 神經支配와 腦에서 스트레스에 依한 호르몬이 免疫學的으로 活發한 細胞와 結合하여 機能을 變化시킬 수 있다.

- 스트레스 反應에서 생기는 行動의 變化

담배를 많이 피게 되고 술 마시는 것이 增加, 睡眠 減少, 運動 減少, 治療에 對한 執着 減少

- 健康한 사람은 알기 힘든 일이나 社會的 걱정을 일으키는 일에 露出되면 T 細胞分裂(mitogenesis)의 抑制와 循環하는 CD8 과 NK세포의 數가 增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癌朱를 돌보는 家族, 醫科大學 試驗, 事故, 臨床的 憂鬱症에서는 淋巴球의 數나 機能의 變化를 볼 수 있다. 즉 mitogen 刺戟에 依한 繁殖反應 減少, NK세포 減少, 사이토카인(cytokine) 生成 등이다. 免疫機能에 對한 스트레스의 效果의 範圍는 매우 넓다.

② 免疫系는 腫瘍의 成長을 調節하는 機能이 있다. Burnet는 免疫監視說(Immune surveillance theory)에서 免疫系는 正常人에서 癌細胞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藥物學的 方法으로 免疫系를 抑制시킨 경우나 免疫缺乏疾患에서는 癌 發生의 危險이 높다. 免疫을 增加시키는 療法은 惡性黑色腫이나 腎臟癌에서는 限定된 抗癌 效果를 볼 수 있었다

③ 스트레스 下에서의 免疫變化는 癌 成長과 轉移에 影響을 줄 수 있는 形態이다. 스트레스에 依

해 誘導된 變化로서 淋巴球 表面, 細胞 分化의 可能性, 사이토카인의 生成의 證據를 볼 수 있다. 癌患者에서 病의 進行이 免疫의 直接的인 變化에 關係된다는 證據는 아직 없다. 動物實驗에서 CD8 細胞와 NK 淋巴球의 抗癌細胞毒性과 CD4 淋巴球에 依한 構造的 炎症 反應이 癌成長과 轉移에 影響을 줄 수 있다고 暗示하는 것이다. 이러한 結果는 人間에서는 아직 報告가 없다.

④ 스트레스 下의 免疫變化는 癌細胞 成長과 轉移에 影響을 줄 程度의 크기이다. 甚하게 免疫이 抑制된 例에서 癌의 發生과 關係된 證據가 있으니 免疫抑制劑를 治療로 받은 臟器移植患者나 免疫缺乏患者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免疫機能 사이의 關係는 매우 弱하다.

⑤ 스트레스 調整이 疾患의 進行에 影響을 줄 수 있다. 社會的인 도움 方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어떤 慢性疾患에서는 過程을 良好하게 한다는 證據가 있다. 例를 들어 轉移된 乳房癌 患者의 硏究에서 生存期間이 18個月 延長되었고 黑色腫이 있는 女子나 男子에서 生存期間이 짧어지고 5-6年 後 再發이 減少되었다. 이러한 硏究에서 스트레스 調整이 NK세포의 細胞毒性을 效果的으로 增加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免疫機能의 變化와 再發率이나 死亡率과 사이에 關係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스트레스 減少療法에 依한 免疫機能의 增加는 免疫機能과 이에 따른 疾患의 進行에 限定된 效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論亂이 있다.

結果的으로 Andersen의 報告에서는 疾患에 依해 이미 惡化된 免疫機能은 患者에 있어서 精神的 經驗과 連繫하고 있다. 아직 스트레스와 關係가 있는 免疫 變化가 癌의 進行과 轉移에 聯關이 있는지는 疑問이지만 이에 對한 硏究나 報告가 活發하다. 만약 이러한 事實이 確實하다면 스트레스 減少 調整法은 免疫을 增加시켜 癌의 進行을 改善시킬 수 있을 것이다. 以上과 같이 스트레스, 痛症 같은 것은 癌의 發生이나 進行에 影響을 줄 可能性이 있으며 그 調節 또한 매우 重要하다고 하겠다[10].

따라서 不良한 情緖刺戟은 人體의 免疫系統機能에 影響을 미쳐 體液免疫, 特異性免疫, 非特異性免疫의 監視機能에 障碍를 주어 發生되는 突然變異細胞가 發現과 同時에 消滅케하지 못하여 惡性癌腫을 發生케 한다[7].

다시 말해서 癌의 特徵的 所有者들은 一般的으로 外界環境에 適應이 弱하고 環境과의 調和로운 生活이 어려우며, 스트레스 狀況에 積極的인 對應보다는 消極的인 回避를 하기 때문에 속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다. 그래서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癌 發病率이 높고 癌의 成長도 빨라져서 癌 死亡率이 增加한다고 한다[3].

(3) 七情과 內分泌系統과의 關係

生體를 調節하여 心身을 結合하는 또 하나의 通路로서 內分泌系가 있다. 身體 各 部位의, 例를 들어, 腦下垂體, 甲狀腺, 膵臟, 副腎, 卵巢 등의 內分泌線에서 排出되는 호르몬이 生化學的으로 生體를 調節하는 것이다. 間腦는 視床下部→腦下垂體→甲狀腺→호르몬 分泌라는 것이 腦에서의 命令經路이지만, 호르몬의 必要度에 따라 下部로부터의 情報가 上部에 피드백되는 결과 視床下部의 作用이 調節되어 血液 중의 호르몬 濃度는 一定하게 維持된다. 以上과 같이 自律神經系와 內分泌系는 視床下部를 中樞로 하여 生體가 恒常性을 維持하도록 恒時 作用하고 있다[9].

스트레스 學說을 처음 提唱한 셀리에 博士에 依하면 人間뿐만 아니라 다른 動物에게도 精神的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즉 不安定한 精神狀態에 빠지면 호르몬(腦下垂體 前葉과 副腎)의 分泌에 不均衡이 일어나 血液이 酸性化되고, 온몸은 酸素不足環境에 빠져 病에 걸린다고 한다. 또한 慢性的인 스트레스에 露出될 수 있다고 한다. 染色體의 異常은 몸이 發癌物質에 露出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發癌因子의 重要한 原因이 된다. 스트레스는 染色體 以上 外에도 各種 環境毒素物質에 依해 損傷된 遺傳子의 恢復能力을 顯著하게 減少시켜 癌을 發生시킨다[13].

이처럼 內分泌係統은 人體內 環境의 安定 및 身體와 外界環境의 關係維持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한다. 사람이 强한 衝擊을 받은 후 內分泌係統의 機能은 確實하게 影響을 받으며 본래 安定되었던 體內環境은 平衡을 잃고 正常組織細胞는 突然

變異를 일으켜 畸形的으로 生長하고 外界環境의 나쁜 刺戟因子에 對해 抵抗하기 어렵게되어 癌症으로 發展되는데 重要한 作用을 한다[7].

6. 七情을 爲主로 한 腫瘍의 治療

(1) 『中醫腫瘤學』[5]

日常生活에서 흔히 듣는 얘기 중 화를 내면 腫瘍에 쉽게 걸리느냐하는 質問이 있다. 이 問題는 쉽게 對答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도, 平生 腫瘍에 걸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으며, 平素 溫和하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도 오히려 腫瘍에 걸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硏究報告를 根據해 보면 精神的 因子는 分明히 疾病의 發生과 發展에 影響을 준다. 『內經』에 보면 "怒卽氣上, 喜卽氣緩, 悲卽氣消, 恐卽氣下, 寒卽氣塞, 驚卽氣泄, 勞卽氣亂, 怒卽氣耗, 思卽氣結"이라 하였다. 옛날에는 精神은 홀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物質的인 基礎 위에 있는 것이며 五臟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하였는데, "人有五臟, 化五氣, 以生喜怒悲憂結"이라 하여 일컬어 '五志'라고 하였다. 例를 들어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心在之爲喜, 肝在之爲怒, 脾在之爲思, 肺在之爲憂, 腎在之爲恐"이므로 怒하면 肝을 傷하고, 肺病에는 憂愁가 제일 나쁘며, 思慮過度하면 脾胃를 傷하고, 驚恐은 腎을 傷하여 小便自利가 오며, 過喜는 氣緩하여 心無主하며, 眞心極痛 命曰休라 하였다. 金元時代의 朱丹溪는 '憂怒鬱悶, 朝夕累積, 脾氣消沮, 肝氣橫逆한 즉 乳腺癌이 發生한다고 하였다. 韓醫學에서의 精神的인 影響이 疾病의 發生과 發展에 影響을 준다고 하는 理論은 지금도 臨床에서 重要한 價値가 있으므로 長期的인 精神的 緊張, 過度한 抑鬱, 憂愁思慮, 지나친 刺戟 등은 모두 精神과 身體에 平衡을 잃게 하여 免疫機能을 紊亂시킴으로 生體가 外部로부터 物理的, 化學的 致癌因子로 부터 攻擊을 받게 되면 生體의 對應能力이 떨어져 腫瘍이 發病하게 된다. 實際로 明代의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鬱結傷脾, 肌肉消薄, 與外邪相搏, 而成肉瘤"라 하였다. 때문에 어떤 學者들은 精神的인 緊張 등으로 因한 情緖異常은 腫瘍細胞의 活動을 促進하는 腫瘍細胞促進劑라 하기도 한다.

第 12回 國際 腫瘍學會에서 報告된 內容 중 精神的 因子의 腫瘍에 對한 影響에 關한 報告가 있다. 생쥐를 利用한 實驗的으로 憂愁思慮-緊張이 腫瘍發展의 促進作用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이다. 硏究陣은 環境緊張要所를 排除하고, 安定된 狀態에서 愼重히 動物에 外部的인 創傷을 주지 않고 憂愁思慮-緊張의 刺戟을 준 結果, 우선 血漿의 內皮質 sterone이 增加하였고, 繼續해서 T세포수가 減少하였으며, 胸腺이 退化하였고, 其他 免疫機能과 關係있는 淋巴節機關의 重量이 減少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報告는 情緖上의 憂愁思慮-緊張 등의 各種 精神的인 刺戟은 모두 宿主의 免疫監視系統을 破壞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혈장 glucocorticoid hormone의 持續的인 上升을 通하여 細胞免疫의 損傷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緊張刺戟으로 因한 內源性 ACH(adrenocortical hormone)의 産物이 增加할 뿐만 아니라 天然 或은 合成의 glucocorticoid hormone이 直接的으로 生物化學的 緊張刺戟을 生産함으로 重複해서 腫瘍生長을 促進하는 作用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生活經歷, 適應性 그리고 精神因子는 腫瘍의 發生과 發展에 影響을 줄 수 있다. 따라서 精神治療를 通하여 腫瘍患者로 하여금 精神的으로 安定과 慰勞를 받도록 하며, 極度의 苦痛과 두려움을 輕減시키고, 治療反應과 腫瘍證의 進展을 變化시킬 수가 있다. 어떤 學者는 精神分析法을 通하여 acute lymphoblastic leukemia(ALL) 患者의 豫後를 判斷한 硏究報告를 했는데, 成熟된 人格, 良好한 適應性, 有效한 防御措置 및 社會에 對한 綜合的인 能力이 있는 者는 豫後가 良好하다고 하였다.

以外에 어떤 學者는 腫瘍患者 중 精神發育이 나쁜 原因이 父母나 가까운 知人의 죽음과 關係있다고 하였다. 20餘名의 各種 腫瘍患者를 對象으로 調査한 바 그 중 60%가 1-14歲에 父母를 잃었고, 65%에서는 腫瘍證狀이 나타나기 4年前에 直系尊屬 및 社會的으로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하였다. 20例의 健康한 對照群에서는 父母死亡率이 10%였다. 이와 같이 統計的으로 顯著한 差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어떤 報告에서는 放射線 治療 前에 醫師가 患者에게 그가 받아야 할 治療方法과 豫後 및 合併症 等에 對하여 알려주면 精神的으로 緊張 및 걱정 등이 減少되어 放射線治療 等을 쉽게 받아내고 放射線治療의 後遺症도 輕減된다고 하였다.

以上을 綜合하여 볼 때, 情緖上의 變化는 腫瘍의 發生, 發展, 治療 및 豫後 등 모든 面에 影響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腫瘍患者는 腫瘍과 싸워 이기고자하는 强한 鬪病意志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하겠다. '旣來之, 卽安之'라고 하는 積極的이고, 樂觀的인 마음과 醫師의 適切한 治療가 서로 配合될 때 治療效果를 最大로 向上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癌은 이렇게 征服하고 이렇게 豫防한다』

疾病으로 因해 터져 나오는 苦痛에 찬 외침은 사랑을 갈구하는 외침이다. 그것은 마땅히 부딪쳐야 하는 眞正한 慾求이다. 사랑은 適切한 反應이며 그것은 언제나 100% 作用을 한다. 내 經驗으로는 情緖的인 要因이 癌에 있어 主된 役割을 하는 것 같다. 癌患者들은 情緖的으로 너무 꽉 매여 있을 때가 많다. 그들은 自身의 感情을 그들 自身에게만 가두어 두려고 하기 때문에 本人이 원한다 하더라도 感情의 表現에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相對方에게 어떤 感情을 갖고 있는지, 特히 사랑의 느낌을 表現하고 싶어해도 그 感情을 편하게 나타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다. 우리가 挑戰-몸의 反應-身體的 行動-解放에 이르는 順序와 癌에 內在된 心理的 側面을 上記해보면 그 側面에는 種種 情緖的인 바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挑戰을 스트레스로 바꾸는 恐怖感은 一般的으로 사랑받지 못해서, 拒否당해서, 또는 情緖的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오는 恐怖들이다. 癌患者에 있어서는 몸의 化學體系에 物理的인 反應을 일으키는 情緖的 挑戰들이 大部分 자주 일어난다. 그들의 경우 自身의 狀況을 解決하고 解放을 얻기 위해 取할 수 있는 適當한 行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情緖的인 恐怖는 變化된 몸의 化學的 性質 안에 그들을 固定시켜 놓는다. 이러한 公布가 너무 깊어서 免疫的인 反應을 弱化시킬 수 있다는 主張도 있다. 高脂肪 飮食物의 攝取, 吸煙, 身體의 機能不振 등에 의해 觸發될 수도 있는 癌이 始作되고 나면 몸은 問題가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걱정하지도 않고 認定하지도 않는다 몸은 癌이 發達하도록 내버려 두어 生命을 위협하는 證狀들이 隨伴된다. 그렇게 되면 癌患者들이 그들의 感情에 따라 일을 하고 感情的으로 하도록 놔두게 되는데 이때 몸과 마찬가지로 感情을 治癒하는 일은 極히 重要한 일이다. 大部分은 일단 그 일을 始作하면 즐겁게 臨한다.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사랑을 느끼길 원하며 그 사랑을 自由롭게 줄 수 있기를 원한다. 그 일은 身體的인 水準에서 始作되는데 이때 接觸이 가장 重要하다. 接觸을 通해 우리는 많은 對話를 나눌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對話를 나눌 수 있다 醫師가 特別히 診療를 한 것도 아닌데 훨씬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온 적이 있다면 그 醫師가 좋은 '接觸'을 했기 때문이다. … 癌患者들의 問題點은 自身의 삶에 根本的인 變化를 주는 深刻한 挑戰에 부딪혔을 때 對應해 나갈 能力이 없다는 것에 있다. 適切하게 對應하지 못하고 그 狀況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無能力이 스트레스라는 身體의 化學的 性質에 變化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다시 免疫體系를 低下시키고 癌의 發病에 重要한 原因을 提供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患者들과 個人的, 그룹별 相談을 거듭해 감에 따라 이 要因의 重要性을 더욱 確信하게 되었다. 이런 點을 認識할 수 있었다면 癌患者에게는 커다란 長點이 될 수 있다. 이 要因이 그들의 狀況에 影響을 주었다는 것을 認定하게 되면 그들은 그 狀況에 對해 더 많은 理解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原則的으로는 스트레스의 心理的인 側面에 對應해나가는 法을 배우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다룸으로써 患者는 自身의 幸福에 寄與할 수 있고 健康도 恢復할 수 있다.

(3) 『스트레스病과 火病의 韓方治療』[9]

心身醫學은 英語로 'Psychosomatic medicine'이라고 하는데, 이 用語는 1818年에 獨逸의 하인로

트가 처음으로 使用하였다. 그러나 心身醫學的인 생각은 古代 그리스 時代에 이미 있었고, 哲學者 플라톤은 "마음을 度外視하고 身體의 病을 治療할 수 는 없다. 다시 말해 醫師들이 人間의 全體를 無視하고 있기 때문에 낫지 않는 病이 많다."고 말하였다. 現代의 心身醫學이 學問으로서 體系를 갖추게 된 것은 1935년 美國의 心身醫學者인 단바 博士의 『情動과 身體變化』라는 冊을 發刊하게 된 것으로부터 始作되었다고 할 수 있다.… 癌의 發病에 心身의 相關關係를 認定한다는 思想은 特別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또 革視的인 것도 아니다. 유진 펜더그라스 博士는 癌患者에 對하여 그저 身體에 나타난 證狀을 治療하는 것 뿐만 아니라 患者 自身의 全體를 治療하는 일의 必要性을 强調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癌治療의 經驗이 豊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患者에 따라 治療結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 自身의 經驗을 通해서도 癌治療가 成功해 오랜 期間에 걸쳐 生存하던 사람이 아들이 戰死했다는 通知를 받았다든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든가, 오랜 동안 失職者라든가 하는 스트레스가 癌의 再發을 誘導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例를 알고 있다. … 病의 經過가 感情面의 스트레스에 依해 크게 左右된다는 事實은 充分히 證明된다. … 그렇기 때문에 治療에 즈음하여 醫師들은 단지 身體證狀의 治療에 臨하는 데에서 끝나지 말고 患者 自身을 治療하는 일의 重要性을 强調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한다. 그리고 身體組織 全體에 對하여 影響을 주는 治療法을 배우고 그것을 通해 體內의 異狀細胞를 多少나마 變化시키는 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生覺한다. 醫學의 進步를 目標로 바라보는 우리는 … 癌細胞 自體의 成長과 轉移를 防止할 새로운 手段을 發見하려는 試圖에 있어서 病을 促進하기도 하고 또 沮止하기도 하는데 큰 힘을 發揮할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고 생각되는 人間의 精神의 힘에 關해서도 充分한 關心을 기울일 것을 간절히 所望하는 것이다." 이런 펜더그라스 博士의 見解는 單純히 疾病의 發生에 있어서 心理的인 要因이 隨伴하는 役割을 뒷받침하는 것 뿐만 아니라 患者의 信念도 包含되는 心理的인 機能이 健康을 恢復하는 데에도 動員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强調하고 있다는 點에서 크게 注目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癌은 心身醫學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그러므로 癌의 臨床에서도 心身醫學的, 醫療心理學的인 配慮가 不可缺한데 韓國의 癌의 臨床에서는 이러한 面이 輕視 내지 無視되어 있다. 韓國의 死因統計(86年)에 따르면 循環器系 疾患 다음으로 癌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國內에서도 人口의 老齡化로 癌患者는 漸漸 增加하는 趨勢에 있다. 癌의 臨床은 集團檢診을 爲始하여 診斷, 治療의 過程 全部에서 心理, 社會的인 要因이 關係된다. 癌의 臨床에서 볼 수 있는 心身醫學的인 問題 중에서 主要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進行된 癌으로 처음 病院에 診療를 받으러 오는 사람 : 이같은 사람은 病院에 올 수 있는 餘裕가 없는 生活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자기 몸의 異常을 感知하는 能力이 둔한 사람, 症狀을 正確하게 認知, 判斷하여 適切히 對處하는 能力이 낮은 사람 등이다.

② 診斷過程의 問題 : 指示한 대로 檢査를 받지 않는 사람, 어느 한 사람의 醫師로서는 滿足할 수 없어 모든 專門醫나 여러 군데의 病院을 巡廻訪問하는 사람, 治療를 拒否하는 사람 등이 問題가 된다.

③ 病名宣告 : 美國에서는 90% 以上의 醫師가 癌을 宣告하고 檢査治療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病名을 숨기는 것이 一般的으로 되어 있다. 病名을 宣告하지 않음으로써 得失이 있는데 癌이 더 發展하면 適切한 癌의 診療를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病名을 宣告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病名을 숨김으로 해서 患者가 檢査나 治療를 拒否하거나, 不信感을 갖거나 해서 治療關係가 깨지는 수가 있다. 또 末期에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을 그랬다면서 후회하며 죽는 경우가 있다.

④ 性格이나 精神的 스트레스와 癌患者의 生存期間 : 헬싱키 大學의 硏究에서는 癌의 成長, 病, 年齡, 性, 治療 등의 條件을 同一하게 하여, 癌의 經過와 精神的 스트레스와의 關係를 比較하여 發

表한 것이 있다. 이것에 依하면 精神的 스트레스가 적은 群 쪽이 生存期間이 짧었다는 것이다.

⑤ 癌의 疼痛 : 疼痛의 域値(限界値)에는 性格이나 心理的인 問題가 된다. 不安이 甚하면 痛症의 感覺은 增大된다.

⑥ 癌患者의 精神的 問題에의 對應 : 癌患者는 病期의 各 段階에서 여러 가지 精神的인 問題를 가지고 있다.

⑦ 癌患者의 社會的 問題에의 對應 : 社會生活을 해 온 患者는 癌에 걸렸다 해도 處理해야 할 많은 社會的 問題를 안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⑧ 癌의 自然退縮 : 癌患者의 10萬 名에 한사람 정도의 比率로 癌이 自然히 退縮하여 나았거나 癌의 進行이 停止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은 宗敎的인 便安한 精神狀態이든가, 癌에 걸려서 살아가는 자세에 變革이 일어나 癌과 같이 살아간다는, 人生에 意味를 갖는 積極的인 삶의 方式을 取하고 있기 때문이다.

⑨ 어느 時點까지 治愈를 目標로 하고 延命을 꾀하는가 : 副作用이 많은 抗癌劑를 爲始하여, 나을 希望이 전혀 없는데도 最後까지 고치기 위해서 治療를 繼續하느냐, 죽음의 순간까지 延命을 위해서 治療를 하느냐가 問題가 된다. 國內에서는 最後까지 延命을 爲한 處置와 可能한 한 斷念하지 않고 고치기 위한 癌治療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措置를 다 取했는데도 죽었다 하는 것으로 後悔 없는 滿足感을 醫療側과 家族들이 갖기 쉬운데 한편으로 이러한 態度를 反對하는 사람도 있다. 살릴 가망이 없는데 患者에게 苦痛을 주는 治療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은 家族들이 보는 데서 보내고 싶다, 癌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蘇生을 目的으로 하는 심장마사지나 주사 등을 원치 않는다는 意見도 있다. 癌의 臨床은, 이와 같이 사람에 따라 생각이 틀리므로 困難에 빠지는 수가 있다.

⑩ 死의 臨床으로서의 癌醫療 : 癌醫療는 治愈되지 않는 한 죽음의 問題에서 떠날 수는 없다.

⑪ 癌 노이로제 : 眞性 癌 患者의 몇 배가 넘는 癌 노이로제 患者가 있다. 그러나 癌에 關해서는 노이로제가 될 정도로 早期發見에 有意하고 있는 것이 좋다.

⑫ 再發을 둘러싼 問題 : 가령 早期癌이라 할지라도 一定期間은 再發의 憂慮가 있어 患者는 물론이고 家族이나 醫師도 걱정을 하게 된다. 病名을 모르는 患者에게는 治療의 繼續이나 追跡檢査를 어떻게 받게 하는가에 對해서 醫師나 家族은 고심하게 된다.

⑬ 癌患者 家族의 對應 : 韓國에서는 一般的으로 患者에게 患者 病名을 알리지는 않지만 家族에게는 알려준다. 그러므로 家族 모두가 큰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된다.

國內에서는 癌患者에게는 물론 家族에 對해서도 精神的인 治療나 看護를 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歐美에서는 죽음의 臨床의 場으로서 호스피스가 可能하고 있지만 國內에서는 試圖는 하고 있으나 아직 充分한 機能이 없다. 癌의 臨床對象은 細胞나 臟器가 아니고 癌을 앓고 있는 患者이어야 한다. 西洋醫學은 疾病에 對한 對應이 局所的이고 專門分野 또는 臟器別로 細分化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人間을 總體的으로 다루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弊端이라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래서 癌을 局部的인 臟器의 病으로 보는 態度를 止揚하고 좀더 人間 總體的인 心身의 病으로 對할 必要가 있다. 醫聖 히포크라테스는 "治療의 根本은 말, 다음으로 약, 그리고 칼"이라고 했다. 말은 醫師와 患者 사이의 意思疏通이라고 解析을 해도 좋은 것이다. 患者의 不安과 恐怖, 苦惱를 듣고 蘇生의 希望과 삶의 勇氣를 주는 일이 治療擔當者로서 우선 해야 할 일일 텐데 現行의 分科化된 醫療體制下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疑問스럽다. 癌의 異常에 있어서 心身醫學的인 配慮의 重要性은 이미 指摘했지만 癌治療에 있어서 附隨的으로 더 꼽는다면 다음과 같다.

① 癌患者에게 人間다운 生活을 하게 한다. 죽을 때까지 사는 場所이기도 한 病院은 患者가 人間답게 生活을 할 수 있도록 配慮되어 있지 않다. 病院의 設計도, 診療行爲도, 看護도 患者中心이 아니고 管理中心으로 되어 있다.

② 癌醫療에 있어서 精神的인 어프로치를 輕視

하면 안된다. 癌의 醫療는 單純히 身體의 治療와 看護 뿐만 아니라 心理, 社會面을 包含한 綜合醫療가 되어야 한다.

③ 宗敎的인 必要에 對應을 한다. 癌患者에게는 설령 無信仰이라 할지라도 靈魂의 救濟를 爲해 宗敎的인 必要가 높아지는 時期가 있다. 더구나 信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宗敎的인 必要를 채워 줄 수 있는 瞑想室이나 祈禱室 등을 病院은 設置해 놓아야 한다.

이미지요법

이미지요법은 癌患者들에게 癌으로부터 回復될 힘이 自己에게 있다는 것을 믿게하는 心理療法으로 美國의 放射線 腫瘍學者이며 醫師인 칼 사이몬튼과 그의 婦人이며 精神科 醫師인 스테파니 메튜스 사이몬튼에 의해 開發되었다. 그래서 이미지요법을 그들의 이름을 따서 一名 '사이몬튼 요법'이라고도 부른다. 사이몬튼 요법은 쉽게 말해서 癌에 對한 새로운 接近法이다. 사이몬튼은 疾病을 身體 어느 한 部分의 問題로만 取扱해 온 從來의 西洋醫學的 視覺에서 脫皮하여 東洋醫學처럼 患者의 精神, 身體, 周邊環境 등을 多角的으로 連結하는 精神身體醫學的인 面에서 보았다. 더욱 重要한 것은 사이몬튼은 癌을 身體的인 問題로만 보지 않고 人間의 全體問題로 보았기 때문에 患者가 疾病과 豫告된 죽음에 直面하여 오히려 더 나은 삶으로 轉換할 수 있도록 해 주는 全人的 治療法을 實行하고 있다. 原則的으로 이미지요법은 緊張을 푼 狀態에서 그 節次를 進行하며 그 동안에 患者는 自己가 바라는 狀況과 目標를 머릿속에 具體的인 이미지로 그리는 작업을 한다. 이미지요법을 癌患者에게 應用할 때에는 먼저 癌細胞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머릿속에 그리게 하고는 現在 받고 있는 治療가 具體的으로 癌細胞를 破壞하는 狀況을 그리게 한다. 그리고는 體內에 있는 自然治癒力이 健康을 恢復시키기 爲해 活動하고 있는 狀況을 確實하게 視覺化하는 作業을 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미지요법의 가장 重要한 事項이다. 사이몬튼이 이미지요법을 처음으로 患者에게 使用한 것은 1971年의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治療한 癌患者의 平均 生存期間의 최첨단의 醫學技術로 治療를 받은 癌患者보다 두 배이며, 美國의 全國 癌患者의 平均 生存期間의 3배나 된다.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모두가 治療 不可能으로 判斷한 男女 患者가 사이몬튼 요법을 받음으로써 남은 生을 훨씬 豊饒롭고 積極的인 活動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4) 『21世紀 醫學革命 - 癌은 征服된다』[13]

1990년대초 美國代替醫學界의 皇帝라고 불리우는 초프라. 그는 人體의 病은 單純한 臟器의 故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人體를 이루는 가장 작은 單位인 양자에너지의 歪曲으로부터 오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精神的인 治療가 가장 重要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는 소위 미국땅에서 東洋思想을 基盤으로 한 心身醫學을 主唱하여 醫學界의 중요한 스타로 存在하고 있다. 초프라의 心身論에 따르면 사람이 느끼는 感情 가운데 '좌절'은 人體 免疫體系에 致命的인 打擊을 줄 수 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거꾸로 免疫體系를 强化시켜 준다. '낙망과 좌절'은 心臟麻痺와 癌에 걸릴 危險性을 높여서 生命을 短縮시키고, 反對로 '기쁨과 성취감'은 身體를 健康하게하여 生命을 延長시킨다는 것이다. 또 스트레스 自體와 똑같이 해로운 호르몬을 分泌시킨다고 말한다. 이것은 實際로 生物學과 心理間에 '서로 關係되는 것끼리' 얼마든지 분명하게 줄로 이을 수 있음을 뜻한다. 美國에서 心身醫學을 主導하고 있는 초프라는 늙거나 病에 걸리는 것에 있어서 생각, 느낌, 신념, 감정을 따로 分離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 몸의 細胞들은 우리의 生覺을 날낱이 엿듣고 있으며 그것에 依해 變化되고 있다는 것이다. 초프라의 生覺은 이렇다. "病이라는 것은 外部의 變化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病源菌에 露出되었다고 해서 전부 病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內部에서 病을 어떻게 認識하느냐가 重要하다. 즉 生覺과 感情이 外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解析하는가에 달려있다. 진정 어떤 사람을 治療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環境을 봐야 하고 肉體的 條件과 함께 感情的인 狀態, 靈魂의 狀態를 봐야 한다." 이런 心身醫學에 따라 초프라 웰빙센터에서는 患者들에게 퀀텀 힐링(量子治療)이라는 心理治

療를 하고 있다. 명상과 음악, 소리, 마사지와 같이 免疫體系를 刺戟하는 루머 세라픽, 또는 適切한 다이어트와 營養學的 方法으로 좋은 治療效果를 얻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化學治療나 放射線治療에서 보이는 副作用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가 主張하는 心身醫學의 바탕은 인도의 古代醫學인 아율베다 의학이다. 아율베다 醫學은 肉體를 에너지의 循環體系로 보았고, 이 에너지의 循環體系가 깨질 때 病이 생긴다고 보았던 東洋醫學의 한 갈래다. 초프라는 이 東洋醫學의 槪念을 '量子'란 現代 物理學의 槪念으로 說明하고 있다. "몸과 마음은 分離할 수 없는 하나이다. 나라고 하는 統一體는 두 갈래의 經驗 속으로 分化된다. 나는 생각, 느낌, 욕망 등을 통해 主觀的 經驗을 한다. 또 내 몸을 통해 客觀的 經驗을 한다. 그러나 더 深層的인 次元에서 이 두 흐름은 同一한 하나의 創造根源에서 만난다. 바로 細胞의 超素粒子인 量子에서 만난다." 앞서 量子란 모든 物質을 이루는 가장 작은 單位라고 말했다. 초프라는 바로 이 量子와 東洋醫學의 氣를 接木시키면서 그 동안 排除되어 왔던 感情, 精神世界가 事實은 人體의 物質構造와 獨立된 存在가 아니라 바로 生命活動의 中心이라고 力說한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뿜어내는 에너지 역시 보이지 않는 假想의 存在가 아니라 實在하는 存在로 밝혀지고 있다.

(5) 『면역칵테일 암치료법』[15]

나는 이러한 事實들을 理論的으로, 實驗的으로, 臨床的으로 確認해 가면서 ① 스트레스로부터의 自由, ② 스트레스 減少, ③ 스트레스 管理, ④ 스트레스 解消 등 4가지의 方法을 狀況에 맞게 適用해 가면서 몸과 마음의 均衡을 維持해 가는 것이 癌治療와 豫防의 最優先 戰略임을 强調하고 있다. 內的 治癒를 받고 스트레스로부터 自由로와wu라. 안되면 스트레스를 果敢하게 줄여라. 아니면 스트레스를 管理할 수 있는 人格的 力量을 키워라. 그래도 안되면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解消할 수 있는 秘法을 開發하라. 물론 아무리 스트레스 管理를 잘 해도 癌이라는 스트레스에 항상 直面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正常人보다 더욱 徹底한 對備와 治療力量의 蓄積에 萬全을 기해야 한다. 스트레스 解消에 가장 좋은 方法은 對話와 睡眠이다. 반드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들어라. 부담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어든다. 睡眠時間은 어떻게 해서든지 充分히 確保하라. 정 어려우면 睡眠劑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不眠의 惡循環을 除去하라. 睡眠은 곧 恢復이요 治療力量의 蓄積임을 명심하라. 내가 活用하는 方法 중의 하나는 逆스트레스 治療法이라는 것이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스트레스 중의 제일 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이다.… 나는 患者들에게 完治 뒤의 삶을 構想하라고 말한다. 可能하면 職場生活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範圍 내에서 可能한 한 復歸하라고 권한다. 時間이 되는대로 흐르는 것은 治療에 도움이 안 된다. 지나치게 緊張을 해도 안되지만 너무 緊張이 풀리는 것도 免疫體系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意味에서 스트레스는 人生의 양념이다. 많아도 안되고 없어도 問題가 된다. 나쁜 스트레스(불안, 염려)를 좋은 스트레스(새로운 人生構成)로 바꿔라. 그래서 癌을 계기로 스트레스 管理의 大家가 되라.

Ⅲ. 考 察

一般的으로 新生物(neoplasm) 또는 腫瘍(tumor)이라는 것은 生體를 構成하고 있는 正常的인 細胞로부터 生物學的 性狀이 다른 非正常的인 細胞가 發生하여 生體內 調節機能에 支配를 받지 않고 漸漸 過剩으로 增殖된 組織을 말하며 大部分은 腫塊를 만든다[2]. 腫瘍發生의 原因은 外部에서 原因이 加해지는 環境要因과, 生體 또는 細胞 自身에게 內在해 있는 遺傳的 要因(內因)으로 區分된다. 大部分의 腫瘍은 環境要因과 遺傳要因과의 相互作用을 通하여 腫瘍이 發生한다고 生覺되어진다. 外因性 發癌要因으로는 環境的 要因이 主原因이며, 環境的 要因으로는 化學的 發癌物質, 物理的 發癌要因, 腫瘍 바이러스가 있고, 內因性의 發癌要因으로서는 遺傳的 要因, 內分泌 環境 및 免疫狀態 등이 있다. 具體的인 發癌因子를 살펴보면 飮食物要因, 吸煙, 感染症, 過渡한 性生活, 職業的 危險, 飮酒,

스트레스, 地球 物理的 要因, 公害, 藥品과 醫療節次 등이 있다[2,4].

韓醫學的으로 腫瘍發生原因을 살펴보면 크게 內因, 外因, 不內外因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이 중 七情은 內因에 屬한다[5]. 韓醫學에서는 腫瘍의 病因에 대하여 外因을 强調했을 뿐만 아니라 또 內因을 매우 重要視하였다. 特히 精神的 要因, 先天不足 및 臟腑機能失調 등 要素의 腫瘍發生課程 중에서의 役割을 强調하고 있다. 同時에 腫瘍이란 外邪, 七情, 飮食失節, 臟腑機能失調 등의 各種 病因이 綜合的으로 作用한 結果라는 認識을 하고 있다[6-7].

七情에 槪念에 對해 살펴보면, 마음의 움직임은 感情으로 나타나며 東洋醫學에서는 感情을 일곱 가지 즉, 喜·怒·憂·思·悲·恐·驚으로 나누어 七情이라 하고 이 七情이 各其 身體的인 變化를 일으킨다고 하였다[8]. 이 七情의 變化象은 西洋醫學의 '스트레스'와 매우 비슷하며, 最近까지 心理學者들이 스트레스에 對하여 내린 가장 普遍的인 定義는 스트레스를 하나의 刺戟으로 보는 入場이다. 여기에는 外的인 環境的 條件으로부터 內的인 生理的 現狀까지 多樣한 刺戟들이 包含된다[9].

七情의 病理에 對해 살펴보면, 크게 臟腑의 病證 및 氣의 病證으로 나눌 수 있다. 臟腑의 病證은 喜·怒·思·悲·恐·驚의 五志가 五臟을 傷한 경우의 病證을 말하는 것이니, 喜는 心臟精氣活動의 反應으로 喜가 心을 傷해 病이 된 것은 怡易而不收, 喜笑無度, 注意力不集中, 乏力懈怠하고, 心悸失神이 나타나는데 甚하면 狂亂失常 등의 病症이 나타난다[10,17-19,20]. 怒는 肝臟情志活動의 反應으로 怒의 情志病症은 肝氣가 亢逆하여 위로 頭目에 이르면 眩暈, 頭痛, 易怒가 나타나고, 肝氣鬱結로 肝氣가 不暢하면 胸悶脇痛, 面色青白, 抑鬱不樂, 喜嘆息 등이 나타나며, 氣가 鬱하여 火로 變해 肝火上炎하였을 때는 面紅目赤, 口苦咽乾이 나타나며, 血隨氣逆하여 上으로 走하면 蒙蔽淸竅, 突然昏厥發作하는 症狀으로 要約할 수 있다[8,10,17,20]. 憂는 精神沈鬱의 狀態로 憂의 太過는 肺를 損傷시켜서 胸悶, 喜太息의 症狀을 나타내고 憂로 因해 脾氣가 鬱結되면 運化機能이 失調하여 食納不香, 納呆不欲飮食, 脘腹滿悶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8,10,17,19,20]. 思란 精神集中, 問題考慮의 表現으로 脾藏精氣의 反映이니 心氣가 鬱結하여 心神이 失常되면 心胸苦悶煩亂, 怔忡, 健忘, 抑鬱寡歡 或 精神失常 등의 病症이 나타나고 오래되어 化熱하면 心脾鬱熱하여 心煩不眠, 心悸易驚, 口脣乾燥, 納呆便結, 口舌糜爛生瘡, 舌尖紅赤, 舌黃燥, 脈細數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8,10,17,20]. 悲는 肺의 情志反應으로 氣의 消散이 氣機(肺氣)의 鬱滯로 말미암아 生熱하고 耗氣하여 氣虛를 일으켜 臟腑機能을 衰退시키니 面色慘淡, 神色不足, 氣短無力, 喜嘆息, 精神不振, 頭暈懶惰, 食納不香 或 二便不利 등의 病症을 일으킨다[8,10,17,20]. 恐은 사람의 本身에서 나타나는 一種의 畏怯情緖로 腎氣虛弱하여 封藏不固하므로 腰酸腿軟, 遺精, 尿失禁, 腹瀉, 月經紊亂 或 淋漓不斷 등의 症狀을 惹起한다[8,10,17,19,20]. 驚은 갑자기 外部 事物의 刺戟을 받아 發生하는 情志로 人驚하면 心腎을 損傷시켜 氣機가 紊亂하게 되므로 心氣渙散, 神無所附하여 易驚而神怯, 心悸怔忡, 憂惕不寧, 精神萎靡, 或精神錯亂, 譫語, 擧止失常 등의 症狀을 惹起한다[8,10,17,20].

氣의 病證이란 感情의 變化나 寒熱의 差異 等이 一種의 스트레스 因子로 作用하는 데 對한 生體의 反應, 特히 自律神經系의 緊張과 弛緩에서 오는 여러 症候 및 呼吸作用과 穀氣로부터 얻는 人體生命活動의 推進力으로서 氣運의 變動에서 오는 여러 症候를 말하는 것이니 이를 分類해보면 精神的 또는 寒熱 등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依한 症候를 七氣, 九氣, 氣鬱, 中氣, 氣痛, 氣逆 등으로 나누며, 人體의 氣의 源泉이 될 수 있는 大氣를 呼吸하는 狀態에 따라 少氣, 短氣로 나누고, 生命力의 推動作用을 하는 에너지로서의 氣의 升降狀態에 따라 이를 또 上氣, 下氣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七氣, 九氣, 氣鬱, 中氣, 氣痛, 氣逆 등의 症候는 하나의 스트레스 現狀이라 할 수 있으며 少氣, 短氣, 上氣, 下氣 등은 主로 體力의 虛實과 關係된다고 할 수 있다[9,20-21]. ≪東醫寶鑑≫[21]에서는 이에 對해 "七氣者, 喜怒悲思憂驚恐, 或以爲寒熱怒喜憂悲, 皆通也. 人有七情病, 生七氣, 氣結則生痰, 痰盛則氣愈結, 故調氣必先豁痰 … 黃帝問曰, 余知百

病生於氣也,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炅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 九氣不同, 何病之生 … 凡人暴喜傷陽, 暴怒傷陰, 憂愁怫意, 氣多厥逆, 便覺涎潮昏寒, 牙關緊急, 若概作中風用藥, 多致殺人 … 靈樞曰 邪在肺則寒熱上氣, 內經曰 肺藏氣, 氣有餘則喘咳上氣 … 下氣屬心經, 曰 夏脉者, 心也, 心脉不及, 下爲氣泄 是也 … 短氣者, 氣短而不能相續者 是已 … 少氣者, 氣少不足以言也 … 人身元氣與血循環彼橫行藏府之間而爲疼痛, 積聚痰癖壅逆胸膈之上而爲痞滿刺痛等證, 多因七情飮食鬱爲痰飮 … 氣逆者, 氣自腹中時時上衝也"라 하였다.

腫瘍發生因子로의 七情에 對해, 郁[5]은 "精神的인 過度한 興奮과 抑制는 모두 全身의 氣血, 臟腑의 機能에 影響을 미쳐 神經體液系統의 機能失調를 惹起할 수 있으므로 七情의 變化는 腫瘍의 病因에 있어서 重要한 位置를 점하고 있다. … 이는 腫瘍의 發病과 精神情緖가 關聯됨을 說明하는 것으로 七情所傷 或은 其他 原因으로 臟腑虧虛, 氣血失調 등의 內虛 狀況이 招來된 狀態에서 發癌因子가 侵襲하면 '內虛'와 더불어 內外의 邪가 合해져 人體의 氣血이 停滯되고 痰凝毒結하게 되어 癌이 發生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七情이 致癌因子로 作用함에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한다고 하는 것을 具體的으로 提示하여 주고 있다. 또 西洋的인 觀點으로 스트레스가 致癌因子로 作用하는 過程에 對해 아이언 고울러[4]는 "體內化學性質에 對한 變化가 持續되는 경우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것을 經驗하게 된다. … 繼續되는 스트레스로 因해서 肉體의 免疫體係가 枯渴되면 體內 化學的 性質에 影響을 끼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스스로 維持하고 고칠 수 있는 肉體의 能力을 減少시키며, 特히 호르몬 水準에 變化를 준다. 그래서 잘못된 食餌療法과 같은 要因들과 함께 스트레스는 많은 病들이 浸透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나는 스트레스가 癌을 일으키는 主要한 原因이라는 것을 確信한다. … 適切하게 對應하지 못하고 그 狀況으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하는 無能力이 스트레스라는 身體의 化學的 性質에 變化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다시 免疫體係를 低下시키고 癌의 發病에 重要한 原因을 提供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스트레스가 免疫體系를 低下시켜 人體 內에 化學的 變化를 일으켜 主된 發癌因子로 作用한다는 事實에 對해 本人의 經驗을 바탕으로 說明을 하고 있다. 以上에서 알 수 있듯이 東西洋의 醫學者들은 共히 精神的 刺戟(七情 또는 스트레스)가 發癌因子로서 重要한 役割을 차지하고 있음을 認知하였으며, 最近들어 癌患者 發生率이 계속 增加하고, 또 旣存의 治療方法(手術, 抗癌劑, 放射線 治療)이 별반 治療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癌治療에 對한 代替醫學이 각광을 받는 現在 狀況에서 이에 대한 關心의 增幅 및 治療領域의 擴充에 對한 試圖가 이루어지고 있는 實情이다.

七情의 腫瘍發生病機는 크게 七情과 神經系統과의 關係, 七情과 免疫과의 關係, 七情과 內分泌系統과의 關係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張[7]은 "七情과 神經系統과의 關係는, 사람들은 各種 社會生活 중 外界의 信號에 따라 相應하는 反應을 하며, 이 중에는 大腦의 信號에 對한 反應過程도 있고 同時에 人體의 心理活動過程도 있다. 사람들은 外界의 精神因子, 例를 들어 一時的인 것이라면 情緖狀態는 매우 빠른 時間內에 正常으로 回復되고 이러한 體內의 生理, 生化變化 또한 빨리 復原된다. 가령 心理的 衝擊 및 客觀的인 刺戟이 사람들의 心理에 持續的 影響을 미친다면, 特히 强한 惡性刺戟이라면 必然的으로 사람들 心理上에 不良한 影響을 미치고 進行하여 사람의 生理狀態에도 影響을 미쳐 이러한 嚴重한 持續的인 影響은 人體內의 急激한 失調를 일으켜 發癌因子로 作用하게 된다. 七情과 免疫과의 關係는, 不良한 情緖刺戟은 人體의 免疫系統機能에 影響을 미쳐 體液免疫, 特異性免疫, 非特異性免疫의 監視機能에 障碍를 주어 發生되는 突然變異細胞가 發現과 同時에 消滅케 하지 못하여 惡性癌腫을 發生케 한다. 七情과 內分泌系統과의 關係는, 內分泌係統은 人體內 環境의 安定 및 身體와 外界環境의 關係維持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한다. 사람이 强한 衝擊을 받은 후 內分泌係統의 機能은 確實하게 影響을 받으며 본래 安定되있던 體內環境은 平衡을 잃고

正常組織細胞는 突然變異를 일으켜 畸形的으로 生長하고 外界環境의 나쁜 刺戟因子에 對해 抵抗하기 어렵게되어 癌症으로 發展되는데 重要한 作用을 한다."고 하여 그 具體的인 機轉에 對해 밝히고 있다. 이를 西洋醫學的으로 解析해 보면, 李[13]는 "癌과 精神健康에 對해 硏究하는 사람들의 分析에 따르면 癌患者들의 性格에서 몇 가지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었다고 한다. 感情表現, 특히 '화'를 過渡하게 抑制하는 性格, 갈등을 克服하기 보다 피하는 性格, 그러면서도 過度한 社會的 欲求를 가진 性格, 每事에 積極的이고 攻擊的이보다는 消極的이고 참는 性格으로 完璧主義者들이 癌에 잘 걸리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이런 性格的 特性을 가진 사람들은 免疫能力에 關係되는 淋巴球細胞와 巨食細胞들의 機能은 떨어지고, 遺傳子의 損傷回復能力은 減少하는 반면 癌細胞分列은 增加한다는 報告가 많다. 乳房癌 患者가 화를 삼키는 정도가 클수록 抗體生産이 적어진다는 報告가 있으며 社會的 欲求가 큰 患者일수록 스트레스에 더욱 예민하다는 報告도 있다. … 스트레스 學說을 처음 提唱한 셀리에 博士에 依하면 人間뿐만 아니라 다른 動物에게도 精神的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즉 不安定한 精神狀態에 빠지면 호르몬(腦下垂體 前葉과 副腎)의 分泌에 不均衡이 일어나 血液이 酸性化되고 온몸은 酸素不足環境에 빠져 病에 걸린다고 한다. 또한 慢性的인 스트레스에 露出될 수 있다고 한다. 染色體의 異常은 몸이 發癌物質에 露出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發癌因子의 重要한 原因이 된다. 스트레스는 染色體 以上 外에도 各種 環境毒素物質에 依해 損傷된 遺傳子의 恢復能力을 顯著하게 減少시켜 癌을 發生시킨다."고 하였고, 趙[9]는 "身體 各 部位의, 例를 들어, 腦下垂體, 甲狀腺, 膵臟, 副腎, 卵巢 등의 內分泌線에서 排出되는 호르몬이 生化學的으로 生體를 調節하는 것이다. 間腦는 視床下部→腦下垂體→甲狀腺→호르몬 分泌라는 것이 腦에서의 命令經路이지만, 호르몬의 必要度에 따라 下部로부터의 情報가 上部에 피드백되는 결과 視床下部의 作用이 調節되어 血液중의 호르몬 濃度는 一定하게 維持된다."고 하였으니 모두 스트레스가 人體의 中樞神經, 免疫, 內分泌系에 影響을 미쳐 發癌因子로 作用하는 機轉에 對해 說明하고 있다.

七情을 爲主로 한 腫瘍의 治療에 對해 살펴보면 郁[5]은 "情緖上의 變化는 腫瘍의 發生, 發展, 治療 및 豫後 등 모든 面에 影響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腫瘍患者는 腫瘍과 싸워 이기고자하는 强한 鬪病意志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하겠다. '旣來之, 則安之'라고 하는 積極的이고, 樂觀的인 마음과 醫師의 適切한 治療가 서로 配合될 때 治療效果를 最大로 向上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하여 積極的이고 樂觀的인 生活態度를 지니고 鬪病生活을 進行해 나가는 것이 癌症의 治療效果 上升에 重大한 役割을 하여 患者의 强한 意志 및 醫師와의 協助關係의 重要性을 强調하였고, 아이언 고울러[4]는 "癌患者들이 그들의 感情에 따라 일을 하고 感情的으로 하도록 놔두게 되는데 이때 몸과 마찬가지로 感情을 治癒하는 일은 極히 重要한 일이다.… 그 일은 身體的인 水準에서 始作되는데 이때 接觸이 가장 重要하다. 接觸을 通해 우리는 많은 對話를 나눌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對話를 나눌 수 있다. … 癌患者들의 問題點은 自身의 삶에 根本的인 變化를 주는 深刻한 挑戰에 부딪혔을 때 對應해 나갈 能力이 없다는 것에 있다. 適切하게 對應하지 못하고 그 狀況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無能力이 스트레스라는 身體의 化學的 性質에 變化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다시 免疫體系를 低下시키고 癌의 發病에 重要한 原因을 提供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患者들과 個人的, 그룹별 相談을 거듭해 감에 따라 이 要因의 重要性을 더욱 確信하게 되었다. 이런 點을 認識할 수 있었다면 癌患者에게는 커다란 長點이 될 수 있다. 이 要因이 그들의 狀況에 影響을 주었다는 것을 認定하게 되면 그들은 그 狀況에 對해 더 많은 理解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原則的으로는 스트레스의 心理的인 側面에 對應해나가는 法을 배우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다룸으로써 患者는 自身의 幸福에 寄與할 수 있고 健康도 恢復할 수 있다."고 하여 病과의 싸움에서 無能力해지기 쉬운 癌患者가 가지는 對話

法 및 擔當醫師 또는 助言者의 相談이 發癌因子로 作用하는 스트레스를 管理해 나가는데 相當히 比重있는 役割을 한다고 하였으며, 趙[9]는 "그래서 癌을 局部的인 臟器의 病으로 보는 態度를 止揚하고 좀더 人間 總體的인 心身의 病으로 對할 必要가 있다. 醫聖 히포크라테스는 "治療의 根本은 말, 다음으로 약, 그리고 칼"이라고 했다. 말은 醫師와 患者 사이의 意思疏通이라고 解析을 해도 좋은 것이다. 患者의 不安과 恐怖, 苦惱를 듣고 蘇生의 希望과 삶의 勇氣를 주는 일이 治療擔當者로서 우선해야 할 일일 텐데 現行의 分科化된 醫療體制下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疑問스럽다. 癌의 異常에 있어서 心身醫學的인 配慮의 重要性은 이미 指摘했지만 癌治療에 있어서 附隨的으로 더 꼽는다면 다음과 같다. ① 癌患者에게 人間다운 生活을 하게 한다. …② 癌醫療에 있어서 精神的인 어프로치를 輕視하면 안된다. …③ 宗教的인 必要에 對應을 한다.…"라고 하여 癌治療에 있어서 癌을 局部的인 臟器의 病이 아닌 總體的 心身의 病으로 보는 心身醫學的 側面의 治療에 對한 患者의 信念 및 患者와의 對話의 重要性을 强調하고, 또 "이미지요법은 癌患者들에게 癌으로부터 回復될 힘이 自己에게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心理療法으로 … 一名 '사이몬튼 요법'이라고도 부른다. 사이몬튼 요법은 쉽게 말해서 癌에 對한 새로운 接近法이다. 사이몬튼은 疾病을 身體 어느 한 部分의 問題로만 取扱해 온 從來의 西洋醫學的 視覺에서 脫皮하여 東洋醫學처럼 患者의 精神, 身體, 周邊環境 등을 多角的으로 連結하는 精神身體醫學的인 面에서 보았다. 더욱 重要한 것은 사이몬튼은 癌을 身體的인 問題로만 보지 않고 人間의 全體問題로 보았기 때문에 患者가 疾病과 豫告된 죽음에 直面하여 오히려 더 나은 삶으로 轉換할 수 있도록 해 주는 全人的 治療法을 實行하고 있다."고 하여 腫瘍을 全身問題로 認識하고 그 治療方法에 있어서 精神身體醫學을 導入하고 있는 이미지 요법(一名, 사이몬튼 요법)을 紹介하며 그 治療方法을 提示하였다. 李[13]는 "이런 心身醫學에 따라 초프라 웰빙센터에서는 患者들에게 퀀텀 힐링(量子治療)이라는 心理治療를 하고 있다. 명상과 음악, 소리, 마사지와 같이 免疫體系를 刺戟하는 루머 세라픽, 또는 適切한 다이어트와 營養學的 方法으로 좋은 治療效果를 얻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化學治療나 放射線治療에서 보이는 副作用도 最大한 줄일 수 있다. 그가 主張하는 心身醫學의 바탕은 인도의 古代醫學인 아윌베다 醫學이다. 아윌베다 醫學은 肉體를 에너지의 循環體系로 보았고, 이 에너지의 循環體系가 깨질 때 病이 생긴다고 보았던 東洋醫學의 한 갈래다. 초프라는 이 東洋醫學의 槪念을 '量子'란 現代 物理學의 槪念으로 說明하고 있다."고 하여 초프라의 퀀텀 힐링(量子治療)을 紹介하며 결국 腫瘍治療에 있어서는 心理治療 및 人體量子體制에 影響을 주는 波動醫學을 導入해야 함을 力說하였고, 黃[15]은 "나는 이러한 事實들을 理論的으로, 實驗的으로, 臨床的으로 確認해 가면서 ① 스트레스로부터의 自由, ② 스트레스 減少, ③ 스트레스 管理, ④ 스트레스 解消 등 4가지의 方法을 狀況에 맞게 適用해 가면서 몸과 마음의 均衡을 維持해 가는 것이 癌治療와 豫防의 最優先 戰略임을 强調하고 있다. 內的 治癒를 받고 스트레스로부터 自由로와져라. 안되면 스트레스를 果敢하게 줄여라. 아니면 스트레스를 管理할 수 있는 人格的 力量을 키워라. 그래도 안되면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解消할 수 있는 秘法을 開發하라. 물론 아무리 스트레스 管理를 잘 해도 癌이라는 스트레스에 항상 直面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正常人보다 더욱 徹底한 對備와 治療力量의 蓄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스트레스 解消에 가장 좋은 方法은 對話와 睡眠이다. 반드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들어라. 부담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어든다. 睡眠時間은 어떻게 해서든지 充分히 確保하라. 정 어려우면 睡眠劑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不眠의 惡循環을 除去하라. 睡眠은 곧 恢復이요 治療力量의 蓄積임을 銘心하라."고 하여 스트레스를 全般的으로 管理해 나가는 것이 癌治療의 지름길이며, 이에 對한 몸과 마음의 均衡維持를 爲한 方法으로 對話와 睡眠을 提示하였다. 以上에서 알 수 있듯이 原因的 側面에서 癌과 스트레스(七情)는 많은 相互聯關性을 지니고 있으며, 癌의 進行

및 再發, 轉移 및 豫後에 있어서도 많은 影響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의 管理는 癌患者의 管理 및 治療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며, 이에 對한 具體的인 方法으로는 對話, 相談, 睡眠, 冥想, 自己暗示, 量子治療 등이 있다. 이는 韓醫學에서의 "調氣治神" 理論과 매우 類似하다고 할 수 있으며, 向後 韓方腫瘍治療의 領域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管理法에 대한 積極的 導入 및 試圖가 要하리라 思慮되는 바이다.

Ⅳ. 結 論

以上에서 七情과 癌의 相關關係에 對해 文獻을 中心으로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韓醫學的으로 腫瘍發生原因을 살펴보면 크게 內因, 外因, 不內外因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이 중 七情은 內因에 屬하여 致癌因子로 作用한다.

2. 七情이란 感情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움직임으로 喜·怒·憂·思·悲·恐·驚을 가리키며 이들은 各其 身體的인 變化를 일으키는 原因因子로 作用한다.

3. 七情의 病理는 臟腑의 病證 및 氣의 病證으로 나눌 수 있으니, 臟腑의 病證은 喜·怒·思·悲·恐·驚의 五志가 五臟을 傷한 경우의 病證을 말하는 것이고, 氣의 病證은 感情의 變化나 興奮의 差異 等이 一種의 스트레스 因子로 作用하는데 對한 生體의 反應病證을 말하는 것이다.

4. 七情의 腫瘍發生病機는 七情과 神經系統과의 關係, 七情과 免疫과의 關係, 七情과 內分泌系統과의 關係로 說明되어지며, 이는 西洋醫學의 스트레스를 通한 發癌機轉과 매우 類似하다.

5. 癌患者의 管理 및 治療에 있어서 七情(스트레스)의 管理는 重大한 影響을 미치며 이에 대한 具體的인 方法으로는 對話, 相談, 睡眠, 冥想, 自己暗示, 量子治療 등이 있다.

6. 以上에서 알 수 있듯이 七情은 重要한 致癌因子로 作用하며, 向後 韓方腫瘍治療의 領域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管理法에 대한 積極的 導入 및 試圖가 要하리라 思慮된다.

參 考 文 獻

1. 大韓病理學會 : 病理學, 高文社, pp.21-23, 213-267 1995

2. 송계용 외 : 核心病理學, 高麗醫學, pp.145-189 1998

3. 大韓病理學會 大邱·慶北支部學會 : 간추린 病理學, 正文閣, pp.114- 140, 1998

4. 아이언 고울러 : 癌은 이렇게 征服하고 이렇게 豫防한다, 혜림사, pp.28-29, 173-191, 199-200 1999

5. 郁仁存 : 中醫腫瘤學, 科學技術出版社, pp.14-115 1991

6. 張宗岐 : 臨床腫瘤綜合治療大全, 奧林匹克出版社, pp.43-50, 1995

7. 孟琳升 : 中醫治癌大成 : 北京科學技術出版社, pp.24-29, 1995

8.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pp.16-19, 23- 28, 72-80, 107-109, 145-148, 216-223 1985

9. 趙洪建 : 스트레스病과 火病의 韓方治療, 열린책들, pp.43-46, 57- 79, 335-343, 515-520 1991

10. 스트레스와 免疫機能, 癌의 發生과 進行 http://www.chollian.net/~pain7575 1999

11. 李相龍 : 情動 Stressor(七情)가 五臟機能에 미치는 影響, 神經精神學會誌, 1(1) 1990

12. 楊東仁 : 七情에 關한 文獻的 考察, 神經精神學會誌, 3(1) 1992

13. 이영숙 : 21世紀 醫學革命-癌은 征服된다, (주)제이프로, pp.101 -102, pp.234-237 1999

14. 황성주 : 癌의 再發을 막으려면, 서로사랑, pp.64-66, 110-112 1997

15. 황성주 : 면역칵테일 癌治療法, 호도애, pp.60-66, 1998

16. 金聖勳 : 東醫病理學, 周氏出版社, pp.102-108 1999

17. 全國韓醫科大學 病理學敎室 : 東醫病理學,

一中社, p.88, pp.118- 127, 203-207 1999
18. 김정희 외 : 心理學의 理解, 學志社, p.340 1993
19.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p.68-70, 79-98 1985
20. 崔昇勳 : 內經病理學, 통나무, pp.139-157 1995
21. 許浚 : 東醫寶鑑, 大星文化社, pp.137-150 1990
22. 朱丹溪 : 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p.26 1993